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6. 9

주간 달러/원 동향(6/2~6/5)및 전망

■ <서울외환-USDSP-체결> <일> 2025/06/09 종:1,364.00 ▲5.60 +0.41% 시:1,361.00 고:1,364.40 저:1,359.70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미-중 관세 이슈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합의 위반 주장 등에 따른 관세 갈등 재격화 양상 속에 철강 관세 인상 등의 요인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BOK콘퍼런스에서의 윌러 연준 이사의 다소 도비시 언급 등도 원화 소폭 강세 출발 지지
-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과 무역협상 어려움 토로 등이 달러 약세 견인한 가운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불확실성 상당부분 해소 및 경기 모멘텀 기대 등에 외국인 유가증권 순매수 강화로 달러/원 환율 하방 압력 가하는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전일 미국 민간ADP 고용과 서비스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며 달러 약세 흐름 속, 국내 증시의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지속 영향 등이 반영되며 원화는 1,350원대 진입하며 마감

달러/원 전망

- 지난주 미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호조를 보인 가운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측면 등이 위험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치면서 달러 강세 견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상기 영향은 대내적으로도 외국인 포트폴리오자금 유입 속 국내 자산 순매수 강화 추세에 힘을 실는 요인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미-중간 정상 통화 이후 협상 진전이 기대되는 측면 등도 달러 강세 추세를 확대할 가운데 주간 단위 원화 환율 소폭 상승 전망

예상거래범위

1,355원 ~ 1,375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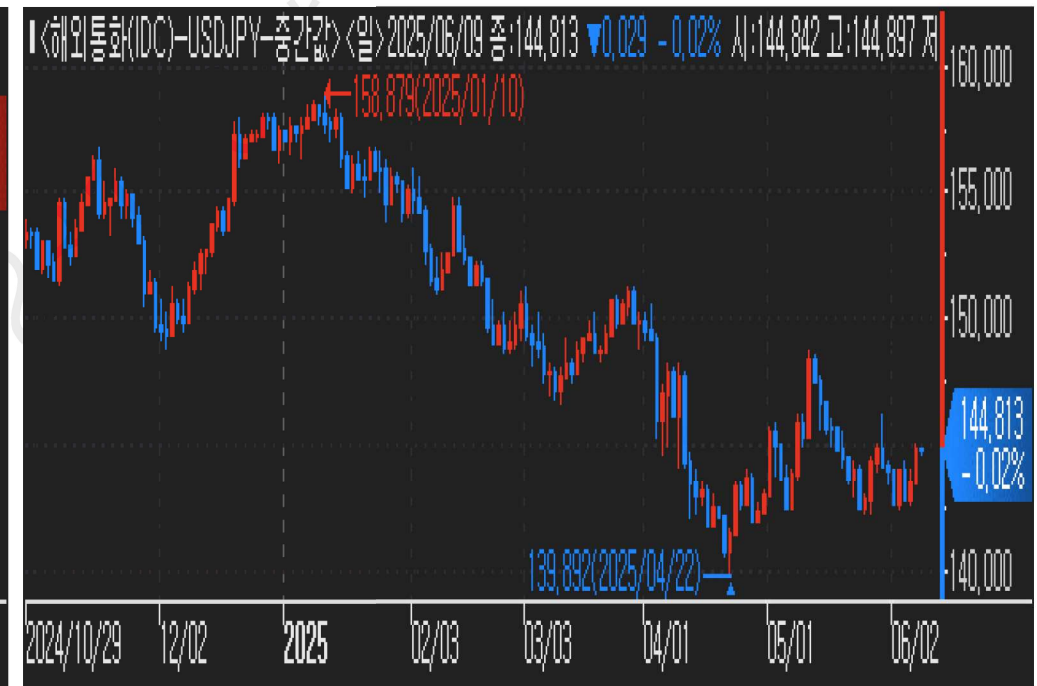
1,383.5 1,383.5 1,355.7 1,358.4 -21.7

유로·엔화 동향 (6/2~6/6)



유로화 동향

- 주초, 미-중 무역갈등 재격화 영향 속 달러 약세 반영되며 유로 강세 출발. 이어 견조한 미 고용지표 발표와 미-중간 대화 기대감 등이 달러 강세 견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유로 주요국 CPI 둔화에 따라 유로 환율 하락
- 중반 들어, 미국의 직전 고용 구인 건수와 달리 ADP의 민간 고용이 시장 전망에 크게 미치지 못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 협상에서의 어려움 토로 및 연준 금리 인하 압박 이슈 등으로 달러인덱스가 약세 보인 가운데 유로 강세 전환한 형국
- 후반 들어, ECB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라가르드 ECB 총재의 통화정책 사이클 중점 언급 등이 시장으로부터 매파적 인식되며 강세 흐름 지속 후, 주 후반, 마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를 웃돈 영향에 달러 강세 전환에 따라 유로 환율은 하락 전환하며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미-중 간 무역분쟁이 재차 격화하는 조짐이 나타난 가운데 달러/엔 환율은 하락 출발. 이어 미 구인 건수의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결과 및 미-중 대화 기대 등이 달러 강세 견인하며 엔화는 약세 전환한 형국
- 중반 들어, 달러 강세 지속된 가운데 일본 경제의 서비스부문 수요 둔화 등에 따른 성장세 약화 요인 속 엔화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일본 초장기 국채 입찰 수요 저조에도 금리가 하락한 측면이 반영되며 엔화 환율 약세 이어진 가운데, 주 후반, 미-중간 무역마찰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안전자산인 엔화를 매도하는 세력 확대된 영향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347 1.1494 1.1346 1.1395 +0.0047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1 145.1 142.3 144.8 +0.7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2~6/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대선 하루 전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확대되었지만, 장중 미-중 갈등 재확화 우려에 따른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진 측면 시장에 반영되며 금리 하락 출발. BOK 컨퍼런스에서 윌러 연준 이사의 미 행정부 관세 정책의 물가에 대한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언급도 도비시 해석된 점도 금리 하락 출발 요인. 이어 신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2차 추경 편성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며 장기 구간 중심 상승
- 후반 들어, 연휴기간 미 5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만 속에 전일 국고채 시장의 급격한 약세가 되돌림되며 금리 하락세가 나타나긴 했으나, 여전히 추경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된 형국 시현하며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대선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기대감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 출발 했으나, 차익실현 니즈 등에 따라 장 초반 상승분 축소되며 강보합 시현. 이어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의 상당부분 해소 속, 새 정부 정책 드라이브 기대감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 강화 등으로 큰 폭 상승
- 후반 들어서도, 신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와 내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이어지며 큰 폭 상승 마감